

KT&G, 중동 2.3조 계약 체결

글로벌 빅4기업 도약 목표

해외 주력시장 리스크 최소화
작년 매출액의 약 50% 규모
진출 국가 100여개국으로 확대

KT&G는 알로코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와 2조2576억 원 규모의 판매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공식했다.

이번 계약액은 지난해 매출액 대비 약 50%에 달하는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다. KT&G는 이번 계약으로 지난 2년간 중동지역 정세 불안, 환율 급등 등 영향으로 주춤했던 해외 주력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또 연간 최소구매수량 조항을 신규 설정해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주력시장의 리스크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KT&G는 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담배사업의 장기적인 성장성 및 수익성을 더욱 견고하게 이끌고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제



백복인 KT&G 사장(왼쪽)과 안드레 칼란조폴로스 PMI 최고경영자가 전자담배 필의 해외 판매를 위한 제품 공급 계약 체결 서명을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KT&G

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PMI(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와의 전자담배 수출계약과 함께 이번 일반담배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쉐련·전자담배 쌍골이 전략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한 차원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KT&G는 지난달 29일 PMI와 글로벌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 '릴(III)'을 통해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KT&G는 3년간 '릴(III)' 제품을 PMI에 공급하고, PMI는 이를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KT&G 관계자는 "2025년까지 '글로벌 빅4(Global Big4)' 기업 도약을 목표로 국내외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 완성을 위해 해외시장 공략 중"이라며 "향후 공격적인 신시장 개척 통해 진출 국가 수를 현재 80여 개국에서 올해 100여 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metroseoul.co.kr

강력한 팬덤가진 '웹툰' 더하니 게임 고공행진

지난 18일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가 인수한 데이세븐은 인기 게임 '일진에게 찍혔을 때' 등을 서비스하는 스토리 게임 기업이다. 컴투스는 데이세븐의 지분 51.9%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이후 일진에게 찍혔을 때 지식재산권(IP)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을 지난 24일 공개했다.



엔씨소프트의 버프툰 '글로벌 웹툰스타 오디션' 수상작 발표 이미지. /엔씨소프트

네오위즈는 네이버 인기 웹툰과 손잡고 지난 2006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최장수 인기 작품인 '마음의소리' IP를 활용, 지난 2016년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게임과 웹툰이 상부상조하는 기세가 무섭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를 먹듯 가볍게 즐기는 '스낵컬처(Snack culture)'의 대표 콘텐츠인 웹툰은 게임과 같은 다른 미디어와 협업과 사업 다각화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2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웹툰을 포함한 국내 만화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조1000억원을 기록했고, 수출은 19.3%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웹툰 시장에서 연재 중인 작품은 8680편에 달했다.

게임 업계는 성장세를 달리는 웹툰과 손잡고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서고 있다. 웹툰은 소형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세계관을 자유

롭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타깃층도 10대~20대로, 게임 이용자층과 겹치는 감점이 있다. IP에 목마른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IP보다는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웹툰 IP를 활용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다.

넥슨은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PC온라인 사업본부와 모바일 사업본부를 통합하고 주요 IP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리니지' 등 강력한 IP를 보유한 엔씨소프트는 아예 웹툰 플랫폼 '버프툰'을 서비스하고 있다. 판타지, 드라마 등 여러 장르의 웹툰을 모바일, PC로 제공한다. 웹툰 서비스인 레진코믹스에도 지난 2014년 50억원을 투자했으며, 글로벌 웹툰 공모전을 열며 신규 IP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산업계 풍속도

1 주총 4월로 연기 검토

- 2 신제품 출시 연기
- 3 모터쇼 잇단 캔슬
- 4 마케팅 활동 축소

산업계가 '코로나19'로 신제품 출시나 기술 공개 행사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실적 하락은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해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다. 코로나19가 확대되면서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인력 부족이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일부 회사는 당초 3월 중으로 예정했던 주주총회를 4월달로 미루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당초 계획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전자투표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주총 현장 참석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아직 1달여 남은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로 실제 참여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은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여러 대응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올해 사업계획이다. 업계가 상반기 시장 안정을 예상하던 상황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LG전자가 이달 초 MWC 2020에서 공개할 예정이었던 V60 씽



삼성전자는 제50회 정기 주주총회를 별탈없이 마무리했다. /삼성전자

큐를 27일에서야 글로벌 뉴스를 통해 처음 발표했다. 국내 출시도 없다. 3월 중 미국과 유럽 등으로만 판매한다. 코로나19와는 관련없지만, 마케팅 활동에 제동이 걸린 탓에 기대감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더 심각하다. 현대자동차 신형 아반떼와 신형 제네시스 G80, 기아자동차 쏘렌토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르노삼성 XM3는 예상대로 출시할 예정이지만 공개 행사가 불발되면서 관심 끌기에 제동이 걸렸다. BMW코리아 역시 1&2 출시행사를 취소했다. 자동차 관련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당장 다음달 예정됐던 '2020수소모빌리티+쇼'가 하반기로 미뤄졌고, 4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모터쇼도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제네바모터쇼가 강행을 선택했지만, 일부 업체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김이 빠졌다.

반도체 업계는 시장 침체에 이어 투자 감소 공포까지 몰아친다. 시장 활성화로 대대적인 설비 확대가 예상됐었

지만, 코로나19에 시장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일정을 늦추지 않겠냐는 우려다. 일단은 투자가 예정대로 이뤄지고는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투자 증가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올레드 TV 가격 하락도 불투명해졌다. LCD 패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레드 TV 가격을 방어해주는 분위기라서다. 올레드 TV 대중화 핵심이었던 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도 당초 기대처럼 1분기 정상 가동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그나마 예정대로 진행한 사업 계획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탓에 예상만큼 실적을 내기 어려워져서다. 그나마 가전이나 IT 업계는 기대했던 수준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실적 하락이 이미 가시화됐다는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활동 제약뿐 아니라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

“공장 가동 멈출라” 유화업체도 발동동

국내정유사, 피해최소화 위한 대책
LG화학, 의심환자 발생해 혼란



국내 유화업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내 유화업계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국내 유화업계가 지방 소재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근무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일단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 이에 주요 정유 4사는 물론 화학업계도 사업장과 함께 사내에서도 대면의 횡수를 최소로 줄이고, 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힘쓰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유업계도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사업장 내에서 정유 시설을 컨트롤 하는 조정실 등 핵심지역에 해당 근무자 외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또한 현장 공사 작업의 경우, 이전에는 10~20명 단위로 조를 구성했으나 앞으로 4~5명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작업자간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은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퇴근 시간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유연하게 운영해, 임직원이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하고 점심 시간에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했다. 임신부나 육아 중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및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전체 임신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3월 6일까지 재택근무도 실시한다.

GS칼텍스도 그동안 '사내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진행해왔다. 사업장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의 사용을 통해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또 사내에서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사내 대면 회의를 줄이고 출장 및 교육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해외법인 근무자 관리 강화, 임직원 유의사항 교육 등 근무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장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근무자의 열을 확인하고, 출퇴근 통근 버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식사 시간에도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조를 나눠 간식을 떨어뜨려 식사를 하고 있다. 또한 에스오일은 사업장 간 이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사내 회의는 유선이나 화상회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국내 화학업계도 사내뿐 아니라 국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섰다. 삼성SDI와 LG화학은 전 직원이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삼성SDI의 경우, 통근버스도 상시 소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충북 청주에 위치한 LG화학 오창2공장에서 지난 24일 청주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던 직원 1명이 미열 증상을 보여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만 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